동우

발행인 김재호 | **편집위원** 임보미(편집국) 장재웅(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김승현(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최화정(편성전략본부) 채성일(콘텐츠플러스센터) 김민지(보도본부)
정규현(전략기획본부) 강혜빈(콘텐츠사업본부) 박동엽(경영지원본부)
김도윤(동아E&D) 오혜정(채널A비앤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822)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

2023년 6월 16일 금요일

vol. 282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시민과 함께 한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헬스쇼 성황리 개최	3면	"〈하트시그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원조의 힘	4면	채널A, 국내 종편 최초 아시아 미디어 서밋 참석

신입에서 DAMG의 핵심인재로…제주에 모인 2년 차 기자·PD들

2021년 입사자 21명, 제주에서 5월 17~19일 리부트 캠프 진행…워크숍 통해 지난 1년 간의 경험 공유

① 'Farewell 리부트 캠프'를 마친 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과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② 'Go back to 2021' 워크숍에서 발표하고 있는 참가자 ③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쉿'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 회장과 참가자들 ④ 제주 도예 클래스에서 도자기를 빚고 있는 참가자들 ⑤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체험 전시에 참여한 참가자들

연둣빛 봄이 푸르름을 더해 가던 5월 17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앞. 계절만큼 상큼한 21명의 동아미디어그룹(DAMG) 미래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DAMG 리부트 캠프 참석을 위해 모인 이들은 2021년 입사한 2년 차 신입 신문기자, 방송기자, 예능PD, 드라마PD들.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할 때 마스크를 쓰고 만났던 이들은 어느덧 마스크 없이 활짝 핀 얼굴이었다.

다시 새롭게, 초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DAMG 리부트 캠프는 5월 17~19일 2박 3일간 제주 서귀포시 중문단지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프의 콘셉트는 'Go back to 2021'.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사생활을 돌아보고, 제주에서의 휴식을 통해 초심을 다잡는 재정비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직군끼리 무작위로 섞여 5개 조로 활동했다. 참가자들은 ▲Go back to 2021(워크숍) ▲제주 도예 클래스 ▲포도뮤지엄 관람 ▲Farewell 리부트 캠프(워크숍) 등 개인별·조별 미션을 수행하며 추억을 쌓았다.

특히 참가자들은 'Go back to 2021' 워크숍을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서로의 업무와 고민을 열정적으로 나눴다. 이들은 리부트 캠프 참가 전 사전과제로 지난 1년간 ▲보람 있었던 것 ▲업무적 고민 ▲앞으로 하고 싶은 것(커리어 관련) 등 미션 키워드를 부여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각자 선배와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동기들과 공유했다.

조민기 보도본부 사회1부 기자는 김승련 보도본부 부본부장과 나눈 '방송기자가 갖춰야 할 역량', '특파원·앵커가 될 수 있던 비결'을 공유했다. '모든 건 의도치 않게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준비가 되어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조언을 얻었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다보스포럼 연설 듣는 사람과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언젠가 차이 나기 마련'이라는 답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얻었다고 한다.

〈하트시그널4〉 첫 방송 날 리부트 캠프에 참가한 제작본부 3CP 강다현 PD는 이진민 제작본부장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제 방법' 등에 대해 대화했다고 전했다. 강 PD는 "나이와 상관없이 PD는 늘 젊어야 하며, 재능이 아닌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답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편집국 사회부 이승우 기자는 '좋은 기사란'을 주제로, 보도본부 사회2부 김민환 기자는 '쏟아지는 보도자료 중 발제 가치 있는 것을 고르는 법'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각자에게 있었던 에피소드 대방출에 진지함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감 리부트 in 제주

참가자들은 캠프 첫 날인 5월 17일부터 제주의 최고 맛집들을 순례했다. 갈치구이 정식, 흑돼지구이부터 고기국수, 회와 초밥까지 현지 메뉴를 모두 섭렵했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엔 삼삼오오 모여 맥주를 기울였다. 마침 시작한 〈하트시그널4〉 첫 방송을 함께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리부트 캠프의 저녁을 즐겼다.

이들은 지난해 캠프 참가자들이 '강추'했던 '제주 도예 클래스'도 다시 찾았다. 제이미 박 명장과 함께 제주흙과 돌을 활용해 밥그릇, 화병 등을 만들었다. 참가자 중 4명은 명장과 함께 마치 영화처럼 기계식 물레를 돌려보는 경험도 했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올해도 리부트 캠프에서 젊은 직원들과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캠프 2, 3일차 프로그램을 같이 즐기고 5개 조 참가자들과 함께 호흡하는가 하면, 캠프 마지막 날 'CEO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리부트 캠프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경영전략실 인재경영팀 이덕한

동우
2023. 6. 16. 금

①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3 서울헬스쇼' 첫 날 전경 ② 전 프로 골퍼 김하늘 선수(오른쪽)의 '원포인트' 골프 레슨 ③ 직장인 단체줄넘기 행사 모습 ④ 채널A 프로그램 〈강철부대〉 출연자 황충원, 정해철 씨(가운데)와 함께 한 일일 크로스핏 수업

시민과 함께 한 '도심 속 건강축제' 서울헬스쇼 성황리 개최

2023 서울헬스쇼 6월 13~15일 서울광장에서 진행…직장인 단체 줄넘기, 암벽 등반 체험 등 참여 프로그램 인기

"도심 속 건강축제! 2023 서울 헬스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2023 서울 헬스쇼'가 6월 13~1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울헬스쇼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열린 광장에서 시민들이 올바른 건강 관리 정보를 접하고 최첨단 헬스케어 산업과 서비스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첫날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화창한 초여름 날씨 속에 시민들과 근처 직장인들은 초록 잔디 위를 거닐며 서울광장에 설치된 80여 개 전시부스를 일일이 둘러봤다. 광화문에 놀러온 외국인 관광객들도 부스를 둘러보며 사진을 찍는 등 흥미로워하는 모습이었다. 참가 기관과 기업들은 각각 ▲공공라이프존 ▲메디컬존 ▲스마트헬스케어존 등 테마에 맞게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 잡는 다채로운 체험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벤트마다 각종 전자기기를 비롯해 프리미엄 건강검진권, 피부관리권부터 척추온열 의료기기, 골프채 세트까지 풍성한 경품이 제공돼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참가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차, LG유플러스 등 대기업부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공공기관까지 다양했다. 특히 유한양행, 동화제약, 존슨앤존슨 등 제약사, 스마트헬스케어 회사 등은 시민들에게 헬스 관련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국립중앙의료원, 고대의료원, 아주대병원 등 의료기관들도 여럿 참여했다.

사흘간 열린 다양한 참여·체험 행사 속에 서울광장은 '건강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다. 첫날인 13일 점심시간에는 14개 팀이 참여한 '직장인 단체줄넘기' 행사가 열렸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 직장인들은 1등 상금(회식비 100만 원)을 놓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 줄넘기를 즐기며 하나가 됐다.

오후에는 200명이 참여한 도심 요가 프로그램 '안다르와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요가'가 진행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한 10m 높이의 암벽등반 체험 코스도 인기였다.

둘째 날인 14일 오전에는 응급 출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닥터헬기가 서울광장을 선회하는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이 펼쳐졌다. 오후에는 서울광장 잔디밭 위에서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는 '도심 속 릴렉스 불멍 타임'이 열렸다. 행사 참가자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도심 광장에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인원 제한 때문에 인기 행사를 놓친 일부 방문객들은 "내년에는 홈페이지에서 꼭 사전 예약 하겠다"며 아쉬워했다.

서울헬스쇼는 한국의 차세대 성장 산업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수면 관련 스타트업인 에이슬립은 시민들에게 수면 분석 후 바른 수면 방법을 안내하는 '수면 코칭'을 선보였다. 유전자 검사기업인 지니너스는 현장에서 69가지 항목의 유전자 검사 이벤트를 열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고령자 대상 비대면 건강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부대행사로 서울광장 인근 더플라자 호텔에서 ▲메타버스 활용과 바이오 기술 수출 ▲당뇨병 대란 위기관리 ▲바이어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진행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개막식 축사에서 "서울헬스쇼는 건강이 화두인 이 시기에 참으로 시의적절한 행사"라며 "늘 함께 뛰고 걷고 운동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D본부 디지털사업파트 박재명

'글로벌 패스파인더' 제도 도입

글로벌 지역 전문가 발굴 및 양성 목표
외교안보 전문기자 입문교육 5차례 실시

6월 13일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진행된 '윙즈101 시즌3 외교안보 클래스'에서 강의를 맡은 이종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오른쪽 위)와 참여 기자들 모습.

편집국이 글로벌 지역 전문가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패스파인더(Global Pathfinder)'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외교안보 전문기자 입문 교육을 시작했다. 글로벌 패스파인더는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이집트 등 국가 단위의 시야에서 벗어나 미주, 동아시아, 유럽, 중동·북아프리카(MENA) 등 광역 지역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이해와 어학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편집국 내 역량개발 프로그램이다.

편집국은 4월 27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패스파인더 제도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니어 기자부터 연수나 특파원을 준비하는 중견 기자까지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글로벌 전문가 육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와 향후 계획이 제시됐다.

지역별 희망자 조기 발굴을 위해 설명회 직후 진행한 참여 신청에서는 4개 광역 지역에 37명이 지원했다. 편집국 뉴스룸기획팀과 국제부는 1차 발굴한 글로벌 패스파인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과 세미나 등을 지원하는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했다.

앞으로 사내 학습조직 지원 제도인 CoP, 외국어 학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DA-캠퍼스', 편집국 기자들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강의 '윙즈101', 관심지역과 주제를 직접 설계하는 해외연수 'DNA 프런티어 연수'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패스파인더 육성의 첫 단계로 '윙즈101 시즌3: 외교안보 클래스'도 5, 6월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5월 23일 외교부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의 '한국 외교부가 일하는 방식' 강의를 시작으로 한일 관계와 2024년 미국 대선, 시진핑 집권 3기 등 국제 현안을 다룬 강의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편집국 뉴스룸기획팀 이서현

복지포인트 제도 7월부터 실시

매년 동아일보 모든 임직원에 일반 160만, 검진 40만 포인트 지급

동아일보가 사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7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포인트는 교육, 운동,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제도다.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동아일보 임직원들은 연령과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기존보다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96만 원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됐다. 복지 포인트는 복지 전문기업인 SK엠앤서비스(베네피아) 사이트를 통해 지급 및 운영된다. 매년 1월 1일 동아일보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연간 기준 일반 160만 포인트와 검진 40만 포인트가 지급된다.

올해는 7월 1일자로 하반기(7~12월)분에 해당하는 일반 80만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검진 40만 포인트는 2024년부터 부여된다. 기존의 건강검진, 모바일지원금, 법인콘도 이용 등도 복지 포인트 제도에 포함돼 통합 운영된다. 일반 160만 포인트는 오픈마켓(11번가, 옥션, 쿠팡 등), 롯데백화점, CU, 교보문고, CGV 등 다양한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검진 40만 포인트는 본인 전용 건강검진 포인트다.

40세 미만 미혼사원은 기존에는 격년 검진 기준이었지만 복지 포인트 도입에 따라 매년 지원받게 돼 건강관리 혜택이 강화됐다. 기혼사원은 일반 포인트를 가족 건강검진에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도 전문병원, 지방병원 등 전국 5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 포인트는 대기업 임직원 전용몰(SK, 신세계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QR이나 바코드 결제를 통해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결제가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항공사 마일리지로도 전환된다. 경영지원국은 하반기 제도 시행에 앞서 복지포인트 설명회를 열고 이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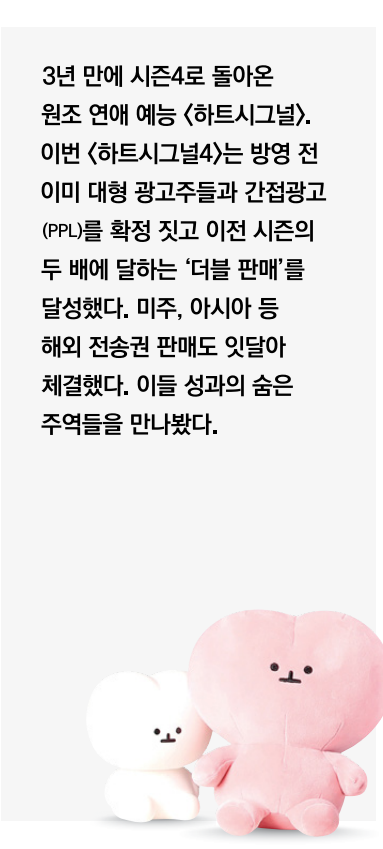
경영지원국 인사팀 이지원

“〈하트시그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어요” 3년 만에 돌아온 원조의 힘

PPL·국내외 콘텐츠 판매 성황 주역들 인터뷰

박진성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매니저(왼쪽)와 신지혜 미디어렙A IMC팀 매니저가 〈하트시그널4〉의 ‘라비’캐릭터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년 만에 시즌4로 돌아온 원조 연애 예능 〈하트시그널〉. 이번 〈하트시그널4〉는 방영 전 이미 대형 광고주들과 간접광고(PPL)를 확정 짓고 이전 시즌의 두 배에 달하는 ‘더블 판매’를 달성했다. 미주, 아시아 등 해외 전송권 판매도 잇달아 체결했다. 이들 성과의 숨은 주역들을 만나봤다.



신지혜 미디어렙A IMC팀 매니저

“방송이 끝날 때 제작 지원 자막이 나가거든요. 광고주들 자막이 넘어가는 것을 보는데 저 브랜드들을 내가 했구나. 참 뿌듯했어요.”

신지혜 미디어렙A IMC팀 매니저는 〈하트시그널4〉의 첫 방송을 본 소감을 이렇게 전했다.

신 매니저는 〈하트시그널4〉의 PPL을 책임지고 있다. 〈하트시그널4〉에는 역대 채널A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PPL이 붙었다. 차량, 가전, 식품, 뷰티, 패션 등 대형 광고주들의 PPL이 방영 전부터 물 밀듯 들어왔다.

시즌4의 간접광고 매출은 시즌3 대비 두 배 수준. 절반가량은 채널A에 처음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브랜드였다.

“기획안이 나오기도 전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하트시그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미디어렙A 영업본부 구성원들은 〈하트시그널〉이 방영되기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영업에 나섰다.

특히 2030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를 공략했다. MZ세대의 ‘최애’ 스마트폰 케이스로 유명한 글로벌 테크액세서리 브랜드 케이스티파이도 그 중 하나였다. 케이스티파이는 종편 최초로 〈하트시그널4〉와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여기는 정말 콘텐츠만 보고 들어온 거예요. 젊은 층이 타깃이니까요.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케이스티파이는 본사가 홍콩에 있어 광고주와의 미팅도 줌 회의로 진행했다. 세 번의 회의 만에 광고 집행이 결정됐다. 패션브랜드 마리끌레르와 조셉앤스테이시는 시즌2부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PPL의 세계에서는 시청률 만큼이나 화제성이 중요하다. 시즌4는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숱한 화제가 됐다.

물론 〈하트시그널〉이 처음부터 업계의 러브콜을 받은 건 아니다. 첫 시즌 당시 관심을 보이는 광고주는 드물었다.

제작진에게 간접광고를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광고 제품을 최대한 많이 노출하고 싶어 하는 광고주와 프로그램의 몰입을 해치면 안 되는 제작진 간 입장 차를 좁히는 건 신 매니저의 몫이었다.

하지만 시즌1부터 제작진과 신뢰관계를 쌓아 온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제 스마트폰 통화 목록에 PD님밖에 없을 정도로 제작진분들과 매일 연락했거든요. 촬영하는 한 달 동안에는 거의 집에 밤 10시에 들어갔어요. 흰머리가 다 났더라니까요.”

신 매니저는 “관리하는 광고주가 늘면서 업무도 늘었지만 보람은 어느 때보다 최고”라며 웃었다.

박진성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매니저

“매일 (OTT 플랫폼에) 들어가서 시청 순위를 체크하거든요. 다행히 초반부터 반응이 좋아서 너무 좋았어요.”

박진성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세일즈팀 매니저는 국내외 OTT 업체에 〈하트시그널4〉 전송권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2023년 채널A 콘텐츠 라인업 윤곽이 나오자마자 판매 제안서를 들고 OTT 업체들을 찾았다. 그는 넷플릭스와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LG U+TV 등 국내 OTT 업체와 전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티빙웨이브와는 연간 계약을 체결해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예능에 큰 관심이 없는 디즈니플러스와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하트시그널〉은 저희 대표 IP이고 연애 예능의 대표 원조’라는 점을 세일즈 했죠.”

박 매니저는 “당초 디즈니플러스의 올해 스탠스는 ‘드라마 외에는 계약을 수급하지 않겠다’였다”며 “〈하트시그널〉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예능이다’라는 점을 어필해 계약을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

코리아 데이팅 장르가 유명해지면서 원조 연애 예능인 〈하트시그널4〉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OTT의 관심도 받고 있다.

지난 시즌에 이어 미주(VIKI·KOCOWA)와 일본(TBS Glowdia) 등 해외 OTT 업체에도 전송권이 판매됐다. 특히 이번 시즌은 싱가포르(PCCW)에 기반을 둔 OTT 업체와 계약해 동남아 판권을 새로 뚫었다. 〈하트시그널4〉의 국내외 매출은 시즌3 대비 40%가량 늘었다. 현재 〈하트시그널4〉는 공개되는 편마다 OTT 콘텐츠 차트 순위권에 오르며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OTT 통합 검색 및 추천 플랫폼 키노라이츠에 따르면 〈하트시그널4〉는 입주자들의 반전 스펙이 공개된 이후 OTT 통합 인기차트(5월 3주 차 기준) 1위에 등극했다.

박 매니저는 잘 만든 우리의 콘텐츠를 해외 여러 국가에서 볼 수 있도록 판로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매출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해요. 아직 국내 서비스만 하고 있는 글로벌 OTT들을 통해 우리 콘텐츠를 해외로 유통할 수 있게 노력해 보려고요.”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정하니

동아일보 기업 신용평가 2년 연속 e-2+

회사채 기준 AA+로 업계 최고 수준…우수한 재무 건전성 보여주는 지표

동아일보가 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나이스디앤비’로부터 최고 수준 신용등급인 e-2+(이투플러스)를 획득했다. 이는 회사채 기준 AA+(더블에이 플러스)에 준하는 등급으로 경쟁사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2017년 최초 평가 이래 5년 연속 e-20(이투제로)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2022년과 올해는 한 단계 상승한 e-2+등급을 받은 것. 해당 등급은 동아일보의 우월한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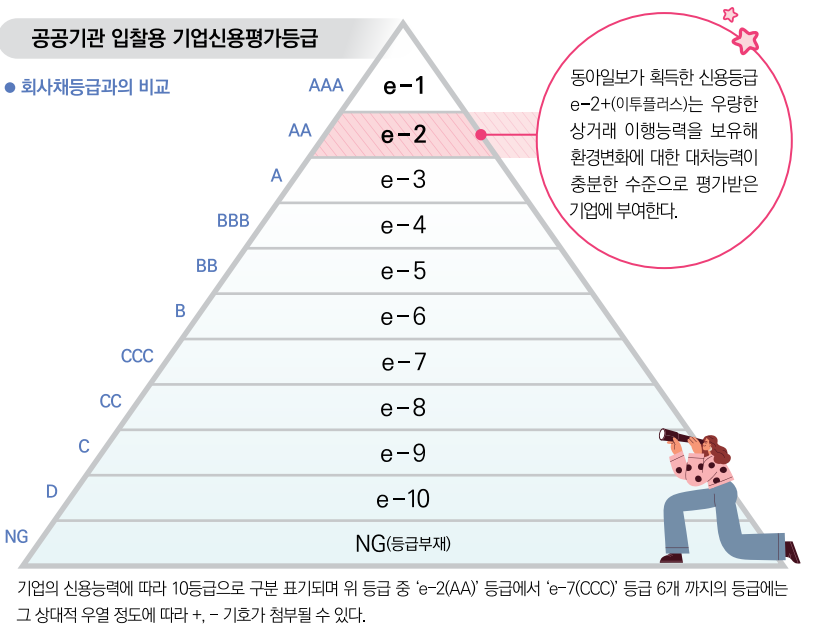
e-2+는 우량한 상거래 이행능력을 보유해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만 주어진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매출액 2685억, 영업이익 117억, 당기순이익 406억을 기록했다. 우수한 영업실적과 경영안정성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기도 했다.

특히 재무안정성 비율 가운데 부채비율이 우수했다. 부채비율은 회사의 총 자본 대비 부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비율이 180%를 넘는 일부 경쟁사와 달리 동아일보의 부채비율은 79.7%에 그쳐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다.

이번에 획득한 등급의 유효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는 각 영업부서에서 신사업 개발을 위한 외부 공공·민간사업 입찰 시 사용되며, 입찰 심사 항목 중 회사의 신용도 부분 평가 시 계량적 지표로 쓰인다.

본사는 해당 항목 만점에 해당하는 신용등급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동아미디어그룹의 새로운 성장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재경국 재무팀 남형주



기업의 신용능력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 표기되며 위 등급 중 ‘e-2(AA)’ 등급에서 ‘e-7(CCC)’ 등급 6개 까지의 등급에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될 수 있다.

채널A, 국내 종편 최초 아시아 미디어 서밋 참석

UAE 국영통신사 WAM 임원진 본사 방문

"〈천하제일장사〉와 〈강철부대〉의 포맷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몽골에서도 K콘텐츠에 관심이 많고 피지컬 대결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를 즐깁니다."(몽골국립방송 관계자)

"〈가면의 여왕〉, 〈쇼윈도: 여왕의 집〉 같은 로맨스 스릴러 드라마를 계속 제작한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드라마 부문에서 확실히 구별되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중국 동영상서비스기업 아이치이 관계자)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8회 아시아 미디어 서밋(Asia Media Summit)〉에서 필자의 발표를 들은 미디어 기업 관계자들은 채널A의 성장 과정과 콘텐츠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아시아 미디어 서밋은 국제기구인 아시아·태평양 방송개발기구(AIBD)가 주관하는 국제 콘퍼런스다. 아시아권 미디어 관련 기업, 정부부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채널A는 종편 중 처음으로 아시아 미디어 서밋에 초청받았다. 필자는 '쇼 케이스(콘텐츠 홍보)'와 '미디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세션에서 발표를 맡았다. 쇼 케이스에서는 채널A 주요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또 미디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세션에서는 종편 출범 뒤 경쟁이 치열해진 한국 방송 시장, 새로운 포맷 개발 트렌드, 적극적인 콘텐츠 수출 전략 등을 설명했다.

발표 후 전문가들은 채널A가 피지컬 대결과 상담(〈요즘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을 테마로 한 예능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다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필로미나 냐나프로가슴 AIBD 사무총장은 채널A 홍보 부스를 찾아 "예능 콘텐츠들이 특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금쪽이 베개'와 '강철부대 소주잔' 같은 테마 아이템을 개발한 것도 인상적"이라며 채널A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6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국영통신사인 WAM의 무함마드 잘랄 알 라이시 사장과 국제업무 담당 임원 등 9명이 동아일보·채널A를 방문했다. 알 라이시 사장은 "UAE에서 K콘텐츠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두 나라 미디어 기업 간에도 많은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WAM 방문단은 동아일보가 국내 신문사 중 유일하게 중동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있다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또 동아일보 신문박물관과 채널A 오픈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한국의 대표 미디어 기업에 어울리는 인프라"라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세형 경영전략실 정책기획팀장이 5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 미디어 서밋〉 쇼케이스 세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경영전략실 정책기획팀 이세형

DAMG 행사 소식

| 제95회 동아수영대회 |

제95회 동아수영대회가 5월 1~5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개최됐다. 동아수영대회는 1929년 제1회 전(全)조선수영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95회를 맞아 국내 수영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선 4관왕을 차지한 국군체육부대 소속 장인석 선수가 최우수 선수(MVP)에 선정됐다.

| 제53회 동아무용콩쿠르 |

제53회 동아무용콩쿠르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동아무용콩쿠르는 5월 8~12일 예선을 시작으로 5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본선을 치렀다. 올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예술전문사 2학년인 황지목 씨가 일반부 남자 한국무용 전통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총 5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제77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

올해 77회를 맞이한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이 5월 14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목동야구장과 신월야구장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부산고가 결승에서 선린인터넷고를 꺾고 황금사자기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3개 권역별 전반기 주말리그를 거친 53개 학교가 참여했다.

|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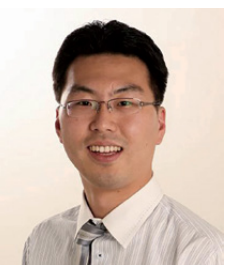
영국 런던 내셔널갤러리 소장 명화들을 선보이는 특별전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이 6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유럽 3대 미술관 중 하나인 내셔널갤러리 소장 명화를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특별전이다.

DAMG 수상소식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선정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사진)가 5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이화여대 창립 137주년 기념식에서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받았다. 이화여대는 "김 대기자는 기자정신과 예리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치·국제·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치부 한상준 차장, 유권자의 날 대통령 표창



편집국 정치부 한상준 차장(사진)이 5월 10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 차장은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점과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 관련 심층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투표 참여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히어로콘텐츠 6기팀 '표류' 이달의 기자상

위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응급의료 체계의 민낯을 다뤄 큰 사회적 반향을 낳은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 6기팀(조건희 송혜미 이상환 이지윤 위은지 홍진환 양충현 하승희 김충민 기자)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시리즈가 5월 25일 한국기자협회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신간소개

〈다이브 딥〉

편집국 산업2부 박선희 기자

〈다이브 딥〉은 국내 기반의 한 스타트업 회사가 어떻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전례 없던 이야기를 담았다.

막대한 투자로 로켓배송과 자체 물류를 구축했지만 이로 인해 거액의 적자를 기록하던 '쿠팡'이 2022년 첫 2분기 연속 흑자를 내며 '계획된 적자'를 끝내고 괴물 같은 성장을 한 비결을 자세히 파헤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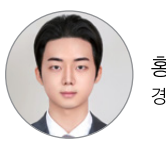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곽승구 / 채널A
콘텐츠플러스센터

① 채널A의 캔버스에 또 다른 점을 찍어 선을 잇고 면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2년 전에 시작한 테니스와 10년 구력에도 9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골프, 당구 등 작은 공으로 하는 참여형 스포츠를 더 경험하고 즐기고 싶습니다.
③ 브라보앤미디어



홍준기 / 채널A
경영지원본부

① 재무회계팀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성장하여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수영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실력이 향상되기 어렵지만,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